

(주)엘디스

대표이사 : 조호성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벤처지원센터 별관 201호

사업분야 : 초고속인터넷, 반사형반도체 광증폭기,

반도체레이저 다이오드

전화 : 062-602-7891

팩스 : 062-602-7893

홈페이지 : www.eldis.co.kr

WDM-PON 핵심 광원으로 세계시장 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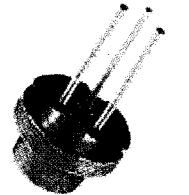
엘디스(대표 조호성)는 초고속 인터넷, IPTV, 영상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차세대가입자 망인 WDM-PON의 핵심 광원을 생산하는 회사다. WDM-PON(파장분할 다중화 통신 방식) 시스템의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R-SOA ; Reflective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와 광통신용 광원인 분포궤환형 반도체레이저 다이오드(DFB-LD), 광주입잠김형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injection-locking LD) 등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WDM-PON용 시스템의 OLT · ONU용 광원모듈과 광가입자망(FTTH)용 광원모듈, CWDM용 광원모듈 등에 응용되고 있다.

PON 시스템은 크게 TDM-PON과 WDM-PON 방식으로 나뉜다. 이중 WDM-PON 방식은 가입자별 파장을 독립적으로 할당해 전송하는 기술로 가장 진화된 차세대 FTTx(Fiber to the x)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전송 속도에 제한이 없고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전송 가능하며 전용선 수준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WDM-PON용 LD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엘디스가 유일하다.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 생산기술을 보유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품은 단일 광 회선으로 512명의 가입자를 수용하고 대역폭 조절이 가능한 기가급 WDM-PON의 핵심 송수신 칩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업체가 극소수여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유일 양산 시스템…2013년 매출 180억 목표 광가입자망 · CWDM용 등 광원모듈 응용제품 생산



WDM-PON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RSOA 칩 생산기술은 200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계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국내 WDM-PON 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엘디스는 현재 WDM-PON에 사용되는 소자의 종류별로 제품군을 양산단계까지 끌어올려 놓아 어느 회사의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놓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WDM-PON 방식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시장의 전체 물량이 수직 상승하면서 (주)엘디스의 LD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매출 40억원, 2012년 80억원, 2013년 180억원, 2014년 IPO 진입을 목표로 18명의 임직원들은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엘디스는 2007년 ISO 9001 ·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09년 나노소자팹센터 공장을 등록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부품 · 소재 전문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하나씩 갖춰나가고 있다.

조호성 대표는 "엘디스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WDM-PON 시스템의 핵심 광부품의 양산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생산성을 크게 개선해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며 "세계 각국이 WDM-PON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2013년, 매출 180억원 달성을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P-LD



DFB-LD

